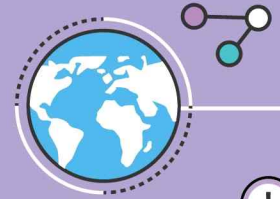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제재, 러시아·EU·미국】 서방의 對러 제재, 러시아 경제 타격에는 한계 드러냄

【화석연료, 러시아】 세계 각국의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 현황

【가스, 러시아·EU·독일】 러시아, 노르트스트림1 가스 공급 줄이며 독일 압박 → 석탄화력 재가동

【가스, 러시아·중국】 러시아 가스프롬, 중국 석유 천연가스집단(CNPC)와 가스 공급 협력 강화

【밀·보리,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어려움으로 인해 곡물 수확 차질 발생

【원전·가스, EU】 EU의회 산하 위원회, 원전·가스 택소노미에서 배제 결의안 채택

【무역, WTO】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개최(6.12~17, 제네바)

【광물, 미국】 미국, 주요 광물 공급 확보 위해 주요 동맹국과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투자·FDI, 중국】 '22.1~5월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전년 동기대비 22.6% 증가

【팜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금지 조치 철회 이후 수출 가속화 계획 발표



GVC 뉴스 더하기

- 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공급망 관련 사항
- ② USTR 캐서린 타이 대표가 말하는 IPEF와 무역 아젠다
- ③ 최근 식량안보 동향과 시사점



GVC 전문가

김나을(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식량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영향”



GVC 기초상식

런던금속거래소(LME) 알아보기 2편



GVC 돌보기

미국 수출통제 제도 (미국 수출통제 시리즈 1편)



GVC 소식통

- ①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② 공급망 관련 상담회 및 포럼 개최 안내



더 찾아보기

'2050 에너지 제국의 미래'(양수영·최지웅) 책 소개

최신 GVC 해외 이슈

● **【제재, 러시아·EU·미국】 서방의 對러 제재, 러시아 경제 타격에는 한계 드러냄**

- 서방의 對러 제재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타격을 입히거나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 고통을 가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제재를 가하는 속도가 느리고, 경제 안정을 위한 러시아의 노력이 성공적이었으며, 석유와 가스를 계속해서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러시아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가스 판매를 통해 매일 수억 달러를 벌고 있으며, 유럽 수출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아시아로 수출을 돌릴 수 있다고 밝힘. 실제로 러시아의 경상수지는 올해 1~5월간 1,1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기록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제금융협회는 원자재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수출을 계속할 경우, 올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액은 3,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
- 한편, 對러시아 경제 제재가 장기화되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점차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현재 러시아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국민들의 실질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외국상품 수입대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실업률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감소하며 전반적인 상품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다르게, 시간이 푸틴의 편이라는 시각도 있음. 러시아 고위 관료는 워싱턴포스트에 “우리 모두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가을이 되면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위기를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다는 분석 →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는 가을·겨울이 되면 EU 국가들 사이에 상당한 동요 발생도 우려

출처 : WSJ, 포린폴리시 등 언론보도 종합

● **【화석연료, 러시아】 세계 각국의 러시아산 화석 연료 수입 현황**

- 러시아가 전쟁 발발(2.24) 이후 가장 많이 판매한 제품은 원유(460억 유로), 천연가스(240억 유로), 석유제품(130억 유로), LPG(51억 유로), 석탄(48억 유로) 순으로 나타남
- 러시아산 연료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었으며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이 뒤를 이었음
- 미국의 反러시아 연대 노력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으나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국가들의 중립적인 입장으로 효과에는 한계를 드러냄
 - EU는 6.3일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연말까지 90% 감축하는 데 합의 하였으나, 헝가리 등의 반발로 송유관 원유 수입은 예외적으로 허용
 - 인도 역시 '22.5월 전년동기대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21배 이상 급등

〈 우크라이나 침공 후 100일간
러시아산 화석 연료 수입국 순위 〉
(단위: 유로)

순위	국가명	수입액
1	중국	132억
2	독일	121억
3	이탈리아	80억
4	네덜란드	78억
5	터키	67억
6	폴란드	44억
7	프랑스	43억
8	인도	34억
9	대한민국	33억
10	불가리아	26억

출처 : 핀란드 CREA
조사 기간 : '22.2.24~'22.6.3

출처 : 한국무역협회 뉴델리지부('22.06.20)

● **【가스, 러시아·EU·독일】 러시아, 노르트스트림1 가스 공급 줄이며 독일 압박 → 석탄화력 재가동**

- 러시아 가스프롬은 6.15일 노르트스트림1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추가로 감축한다고 발표함. 이로써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공급량은 기존 대비 60% 감소함
 - 독일은 가스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한 3단계 대응 계획 중 첫번째 단계를 이미 지난 3월에 발동한 바 있음
- 가스프롬은 캐나다의 제재로 인한 지멘스의 장비 입고 지연을 감축 이유로 주장하였지만, 이에 대해 독일은 가스 가격 인상을 위한 정치적인 조치라고 비난함

- 현 상황이 이어지면 올 겨울 유럽 주요국에서 가스 배급제를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블룸버그 등은 전망함. 이와 관련 독일 경제부는 6.19일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멈춰세웠던 석탄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천연가스 저장률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긴 새로운 에너지 대책을 발표
 - 독일 정부는 현재 57%인 천연가스 저장률을 오는 10.1일까지 80%, 11.1일까지 90%로 올리고, 이를 위해 국책은행인 독일재건은행(KfW)을 통해 150억 유로(약 20.5조원)의 추가 자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임. 다만, 독일의 원자력 발전 단계적 폐지는 오래전 결정된 사항인 바, 탈원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확인됨

출처 : 블룸버그, AFP, DPA 등 언론보도 종합

● **【가스, 러시아·중국】 러시아 가스프롬, 중국 석유천연가스집단(CNPC)와 가스 공급 협력 강화**

- 중국 언론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국영 에너지기업인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은 6.17일 러시아 가스프롬과 극동 지방의 가스 공급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협정서에 서명했다고 함
- 러시아는 이미 연 500억㎥ 내외의 가스를 중국에 공급해 왔는데 이번 협정으로 중국으로의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며, 서방의 對러 제재의 효과도 약해질 것으로 전망됨

출처 : 중국 글로벌타임스, 동아일보 등 언론보도 종합

● **【밀·보리,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어려움으로 인해 곡물 수확 차질 발생**

- 우크라이나 중남부를 중심으로 밀·보리 등의 수확기가 본격 시작되었지만 저장고(사일로)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지난해 수확한 곡식이 제때 해외로 수출되지 못한 채 사일로를 비롯한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음
- WSJ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바닷길을 봉쇄해 연안 항만을 통한 수출길이 막히면서 기존에 수확한 곡물을 출하하지 못하여 새로운 곡물은 담지 못하는 '병목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함

출처 : WSJ, 블룸버그 등 언론보도 종합

● **【원전·가스, EU】 EU의회 산하 위원회, 원전·가스 택소노미에서 배제 결의안 채택**

- 6.15일 EU의회 산하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는 합동 회의를 열고 원전과 천연가스를 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찬성 76표, 반대 62표, 기권 4표로 채택함. 이는 지난 2월 EU 택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넣기로 한 EU 집행위의 결정에 대하여 정반대로 반박한 것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님
 - 상기 위원회들은 결의안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전과 천연가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두 에너지원은 택소노미 규정에 명시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힘
- 결의안은 7월 초 개최 예정인 EU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임. EU의회 의원 705명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EU 집행위는 택소노미안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함. 물론 반대가 더 많으면 원전과 천연가스가 포함된 택소노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

출처 : European Parliament(22.6.15), 조선일보 등

● **【무역, WTO】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개최(6.12~17, 제네바)**

- 6.12~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과문서인 각료선언이 채택되고, 주요 의제별로 총 7개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이 채택됨
 - ①팬데믹 대응 관련 각료선언, ②코로나 백신 지재권 관련 각료결정, ③식량위기 대응 관련 각료선언, ④WFP 제안서 관련 각료결정, ⑤수산보조금 협상(각료결정), ⑥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엄(각료결정), ⑦위생검역 협정(SPS) 관련 각료선언

- 특히, 식량위기 대응 관련 각료선언은 △농산물 교역 원활화, △글로벌 농식품 시스템 회복력을 위한 불필요한 수출제한·금지 조치 자제, △식량안보를 위한 각국의 긴급조치가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할 것을 약속함
- 지난 21년 간 이어진 수산보조금 협상이 금번 MC-12에서 타결됨. 수산보조금 협정상 금지되는 보조금은 불법어업(IUU), 남획된 어종 어획에 대한 보조금임. 한편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특혜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영되지 못했고, 협정 발효 후 4년 내에 동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협정은 실효되는 것으로 합의됨
-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모라토리엄)은 연장되었으며, 이로써 한류 콘텐츠 수출 등 디지털 제품(콘텐츠) 교역 환경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2.6.17)

● 【광물, 미국】 미국, 주요 광물 공급 확보 위해 주요 동맹국과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 미국 국무부는 6.14일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몇 개 국가가 주요 광물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Mineral Security Partnership)'을 체결했다고 밝힘
 - 미국, 한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EU, 핀란드,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 등 참여
- 미국 국무부는 신규 파트너십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투자 촉진을 돕는 동시에 가장 엄격한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함
- 금번에 MSP에 참여를 결정한 한국 정부도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의 근간인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힘

출처 : 로이터(22.6.15),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보도자료 등

● 【투자·FDI, 중국】 '22.1~5월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전년 동기대비 22.6% 증가

- '22.1~5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동기대비 22.6% 증가한 877.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5월 당월 FDI도 133억 달러로서 5.8% 증가
 - (투자국별 증가율) 한국 52.8%, 미국 27.1%, 독일 21.4% 순으로 증가폭이 큼
 - (업종) 전체 FDI의 75%가 서비스업(10.8%↑)에 집중, 첨단기술산업(42.7%↑)이 성장세를 견인
 - (지역) 경제가 가장 발달한 동부(16.1%↑) 증가폭이 가장 적고, 중부와 서부지역이 각각 35.6%, 17.9% 증가
- 다만, 중국 내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이에 따른 봉쇄조치로 금년 월별 FDI 누계 증가율은 둔화 추세
 - '22년 중국 FDI 누계 증가율 : 2월 45.2% → 3월 31.7% → 4월 26.1% → 5월 22.6%

출처 : KOTRA 베이징무역관 中國寶庫(22.6.15)

● 【팜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금지 조치 철회 이후 수출 가속화 계획 발표

-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팜유 수출금지 조치 철회 이후 팜유 수출 정상화를 위해 수출세 인하, 기업당 100만 톤 한도 수출허가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의 팜유 수출 지원 배경은 ▲수출금지로 인해 발생한 기존 팜유의 재고 처리 ▲인도네시아 내 소규모 팜유 농장에 대한 지원 ▲수출을 통한 무역흑자 유지 등으로 파악
 - 팜유 수출세는 톤당 기존 \$575 → \$488로 17.8% 인하
 -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팜유 생산기업 관리 시스템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기업들도 톤당 \$200의 특별 수출세 부과 시 수출을 허용한다는 방침

출처 :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22.6.20)

GVC 뉴스 더하기 ①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공급망 관련 사항

※ 윤석열 정부는 6.16(목)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이라는 경제운용 목표 달성을 위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동 정책방향 중에서 **공급망과 관련한 내용**을 발췌 및 정리함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개요

- 정부는 4대 정책방향(①민간중심 역동경제, ②체질개선 도약경제, ③미래대비 선도경제, ④함께가는 행복경제)을 제시하고 '민생안정'과 '리스크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함
- 20여개의 세부 주제로 이루어져있으며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확인 가능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공급망 관련 내용(요약)

민간중심 역동경제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p.13)	
납품단가 연동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단가 연도 표준계약서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22.下) 등을 통해 수용성 높은 방안 강구 • 조정협의회제도 개선(협상대행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인 상생 문화 유도 병행
민생 안정 -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p.35~37)	
유류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22.8.1 ~ 12.31.) •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22년말),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 한시 인하(△15%, '22.8.1.~12.31.)
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차량(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입시 '24년까지 개소세 감면 연장 (22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 추진) • 하이브리드차(개소세 등 최대 143만원), 전기차(최대 429만원), 수소차(최대 572만원) 감면
재정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재정사업(5개 부처, 약 4조원 규모)을 선별, 집행상황 집중 점검·관리 * 수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농림부),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지원(조달청), 비료가격안정 지원(농림부), 석유유통구조개선(산업부), 수산물상생할인지원(해수부) • 관계부처 및 중앙-지자체 협업을 통해 집행 애로요인 즉각 해소 및 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
수급불안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물가안정 대응반」 설치(농식품부·해수부) → 주요품목 모니터링·수급 불안요인 발생시 신속 대응 * ①주요 농축수산물·가공식품 수급동향 일일 모니터링 + ②주요품목 가격전망 추진 + ③가격불안 포착 시 비축량 방출, 가격 할인행사, 긴급 수입 검토 + ④주요 곡물·수산물 비축 확대 및 전용 비축시설 설치 → 신속 대응
리스크 관리 - 경제안보 대응 및 위기관리 강화 (p.39~41)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상시 위기경보 시스템 구축 * 수입·통관단계부터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공급망 위기경보 시스템' 마련
관리지원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3법(공급망기본법,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공급망 관리·지원기반 구축 • 민간재원 활용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노력 지원수단 마련 추진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안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IPEF, CPTPP 등 다자간 경제 블록화 논의에 적극 참여 및 핵심 원자재 공급국과의 교역·맞춤형 지원 확대 등 네트워크 구축
해외자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용자 지원비율(現 30%)과 실패시 감면비율(現 70%)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고위험 부문 투자시 공공기관의 위험분담 확대 등 민간 해외진출에 대한 용자 및 공공기관 지원 확대
외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현금지원 최대한도(50%)적용 및 국비 부담률 상향 검토
유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신기술 중심의 유턴 유인 확대 ①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직접생산 전환, 기존 국내사업장 유휴공간 내 설비투자 등도 유턴으로 인정 검토 ② 투자금 지원을 지역중심(수도권/비수도권) → 업종 중심(첨단·신기술 등)으로 변경, 유턴효과가 큰 기업에 인센티브 강화 검토 ③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완료 후 국내에 유턴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 완화 ④ 유턴효과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지역별 유턴지원제도의 적정성을 평가·개선 검토



GVC 뉴스 더하기 ② : USTR 캐서린 타이 대표가 말하는 IPEF와 무역 아젠다

※ 6월 초 미국 현지 싱크탱크 WITA가 개최한 ‘Ambassador Katherine Tai o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nd the Administration’s Trade Agenda’ 포럼에서 USTR(미국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가 밝힌 IPEF와 주요 무역 아젠다를 살펴보자

● IPEF와 주요 무역 아젠다

- IPEF의 현재 추진현황과 USTR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①공정 무역(Fair Trade)과 ②지속가능한 무역(Sustainable Trade)

- 미국이 IPEF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경제·안보 정책의 확장
-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참여해준 13개 국가와 순차적으로 협의를 시작할 예정

- 미국이 추구하는 IPEF는 ‘유연하고(Flexible), 체계화된(Programmatic), 그리고 협상 가능한(Negotiable)

협약체로, 각국이 어느 수준으로 각 의제(Pillar)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참여국가의 요청을 잘 경청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

- 더불어, USTR의 주요한 IPEF 의제 중 하나는 디지털무역(Digital Trade)이며, 참여하는 국가의 경제 및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국가가 어느 단계에 속해있는지, 장·단기 목표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

- IPEF가 기존 다자간 무역협정과 다르게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존재하나, IPEF는 개별 의제별로 가입 여부와 구속 수준을 상이하게 가져가는 만큼 기존 다자협정과 다른

- 하지만 개별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상황에 맞게 범위와 구속수준을 규정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국가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미국은 참여 국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할 것

- IPEF 참여 국가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미국 관세율 인하 검토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IPEF의 주요 의제는 ①공급망 교란, ②디지털 전환, ③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이며, 미국은 무역 파트너에게 이미 낮은 관세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세율 인하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

- WTO 제12차 각료회의와 관련하여, WTO 환경상품조약(EGA ;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을 통해 환경상품의 생산 및 거래를 장려해야 하지만 종합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언급

- 태양광 패널을 예시로 ‘미국의 태양광 패널의 85%는 중국 수입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제품의 대다수는 강제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환경 및 노동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런 사안들이 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힘

● 시사점 및 전망

- 미국은 IPEF를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리더십 강화, △미국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탄력성 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 미국은 '23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미국 개최 예정)에서 IPEF가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금년 6월 중순까지 각 의제별 참여국을 확인할 예정

〈 WITA 포럼에서의 USTR 캐서린 타이 대표 〉



(자료: 캐서린 타이 트위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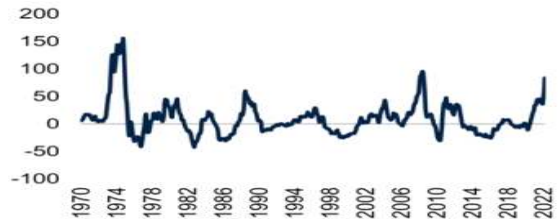
GVC 뉴스 더하기 ③ : 최근 식량안보 동향과 시사점

※ 최근 글로벌 식량안보 위기가 가중되며 각 국의 소비자물가 안정 및 내수 물량 확보를 위한 식량 수출제한 조치가 확산되고 있는 바(‘인사이트’ 14호 참고), 식량안보 대응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자

●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중심의 식량 수출제한 조치 확산

- 최근 에너지·식량·비료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며 물가가 오르고 일부 국가의 경우, 정부 통제 내수가격과 수출 가격 간의 차이가 커지며 내수 공급 부족 문제 발생
 - 이에 △가격 상한제 △내수공급의무화 △수출세 △생산자 보조금 △정부우선구매 등이 시행됐으나, 결국 수출 중단 조치를 단행 (예 : 인니 팜유, 말련 닭고기 등)

〈 식량 가격 성장률 - 23개월 전 대비 가격 변화율 〉



(자료: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Outlook)

- 특히 러우 전쟁으로 세계 식량 공급이 감소하면서 주요 수출국 외의 국가들(이집트 등)도 내수 물량 확보를 위해 자체 생산품 및 제3국 수입 식량 수출금지 결정
- 시장에 영향이 가장 큰 조치는 러시아 곡류(세계시장 점유율 13.4%)이며, 카자흐스탄 해바라기씨(10.9%), 러시아 해바라기씨(8.6%), 우크라이나 곡류(7.6%), 말레이시아 닭고기(6.2%) 순

〈 수출금지 조치별 시장 영향 〉

시행 국가	대상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Kcal)	시행일자	종료일자(예정)
러시아	Wheat, meslin, rye, barley, maize, sugar	13.41%	'22.3.14	'22.6.30
카자흐스탄	Sunflower seeds	10.95%	'21.12.15	'22.6.30
러시아	Sunflower seeds	8.64%	'22.4.1	'22.8.31
우크라이나	Wheat, oats, millet, sugar	7.58%	'22.3.9	'22.12.31
말레이시아	Chicken	6.17%	'22.6.1	'22.12.31
이란	Potatoes, eggplants, tomatoes, onion	6.10%	'22.4.27	'22.12.31

(자료: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 세계시장점유율은 수출제한 조치 시행 전 4년치 수출 실적을 반영

- 현재 세계 식량 총수출(단위 : 칼로리)의 16.9%가 수출제한 조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08년 농산물 가격 급등 시(11.9%)보다 높은 수준

●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MC12, 6.12~17)에서 수출규제를 포함한 식량안보 논의

- (각료선언) WTO는 금번 회의에서 식량에 대한 부당한 수출제한 및 금지조치를 자제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긴급조치의 투명성을 개선하기로 약속
- (각료결정) 세계식량계획(WFP)이 인도적 목적으로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 수출 제한을 면제하기로 결정
 - 現 WTO 체제는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 이외의 수출물량 제한 조치를 불허하나, 식량 등 필수 품목의 부족 현상을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는 예외로 인정 (GATT 11조)

〈 6.12-17일 WTO 12차 각료회의 〉



(자료 : WTO)

- 5.22일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도 주요 발언자들이 러우 사태로 촉발된 식량위기를 언급하고 파급효과를 경고하는 등 식량안보가 당분간 국제사회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

● **식량자원 생산·비축·가공·수송·선적 밸류체인 진입의 중요성이 대두**

- 현재 곡물의 경우 **ADM(미국), Bunge(브라질), Cargill(미국), LDC(프랑스)** 등 4대 곡물메이저 'ABCD'社가 곡물교역량 및 높은 저장시설 점유율을 바탕으로 막대한 시장 영향력을 행사



- ADM社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2.1분기 기후로 인한 공급 측면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오일시드 제품 등의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높은 이익을 달성 (22.1분기 순이익은 전년동기비 53.5% 증가한 10.6억불)

- **일본은 2000년대부터 미쓰이, 마루베니, 미쓰비시 등 종합상사들이, 중국은 국영기업인 중량그룹이 인수·합병 등을 통해 해외 곡물유통사를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

- 한국은 포스코인터내셔널, 하림팬오션, CJ인터내셔널 등이 곡물 유통사업 진출

〈 글로벌 곡물메이저 기업의 시장 영향 〉

- 세계 각지의 지역 농가 및 대규모 생산업자와 공급계약 등을 통해 수확물을 매입하고, 선물거래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가격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
- 막강한 자금력과 인공위성을 통해 글로벌 생산량 파악 및 곡물 수급량 조절 가능
- 항만 저장 및 운송시설 등 유통 기반을 선점함으로써 경쟁자의 진입 저지 가능

(자료 : 신용보증기금)

● **식량 산업에서 파생되는 산업·기술 수요 증가 전망**

- 곡물 재배량을 늘리기 위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품질 강화 기술 및 수송 인프라** 등 시장기회도 확대될 전망

- 인도(세계 밀 생산량 3위), 러-우 전쟁 영향으로 세계 밀 공급이 부족해지자 수출시장 확장을 위해
 - ①밀 수송용 철도차량 확충 및 ②정부 주도 밀 품질 강화 움직임

- 최근 탄소중립 달성과 소비자의 친환경 중시 경향에 따라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바이오플라스틱** 등의 수요가 부상하며 관련 기회도 모니터링 필요

- '22.2월 Bunge社(곡물)와 Chevron社(에너지) 간 양사의 강점을 활용한 재생 원료 사업 합작회사 설립 합의

● **국내 안정적인 곡물 수급을 위해서는 해외 투자 및 파트너십 구축 필요**

- 한국은 쌀을 제외한 곡물의 식량 자급률이 낮으며(0.5~9.4%, '15~'19년 기준), 특히 **밀·콩·옥수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국회예산정책처, '21.10)

- [곡물자급률('19년 기준)] : 밀 0.5%(수입 : 미국, 호주, 우크라 등), 콩 6.6%(수입 : 미국, 브라질), 옥수수 0.7%(수입 :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 현재 농림부 유관 기관들이 **해외시장 동향 모니터링 및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저금리 용자를 제공하는 등 국내 곡물 수급 안정화 정책에 기여 중

-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곡물 수급 안정 정책을 크게 ①**국내 생산 확대**, ②**수입 안정화**, ③**적정 물량 비축**, ④**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으로 구분

〈 해외 관련 곡물 수급 안정화 기관 및 정책 〉

기관명	내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가격 및 국제 동향 모니터링 및 대외 전파
한국농어촌공사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의거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용자 제공



GVC 전문가 : 김나을(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식량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영향'

※ 최근 식량위기 가능성이 고조되며 여러 나라가 수출제한조치를 통해 식량 보호에 나서고 있음. 이에 따른 국내 식량 공급망의 교란과 그 영향, 그리고 시사점을 살펴보자.

● (배경)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 증대 → 식량보호주의

- 식량 안보란 모든 사람이 물리적·경제적으로 필요한 식품에 언제나 접근 가능한 상태를 의미
- 식량은 글로벌 공급사슬(GVC)의 급격한 성장 이후,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자재로 부각되며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물자로서의 활용 증가
- 특히 러·우 사태 발생 이후, 식량위기 가능성이 고조되며 세계 각국은 식량 보호에 나서고 있음
 - 식량보호주의란 국가의 식량안보 보장을 위해 수출제한조치, 보조금 지급 등을 활용하여 식량 수출을 통제하거나 비축을 확대하는 것

● 수출제한은 식량보호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치

- 공급량과 가격 변동에 따라 통제가 쉽지 않은 식량 비축과 달리, 수출제한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통제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
- 수출제한조치에는 ▲수출금지 ▲수출허가제(쿼터) ▲관세 조정 등이 있음



이미지: Shutterstock

● 우리나라는 식량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소비하는 산업 구조로 공급망 교란 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20년 기준 원료 곡물의 79.8%를 수입으로 조달하며, 소맥(밀)·옥수수·대두유·팜유의 수입산의 국내 소비 비중이 각각 99% 이상에 달함
- * 식량 품목별 국산 사용량 비중('20년): (소맥) 0.1% (옥수수) 0.1% (대두유) 1.1% (팜유) 0.0%
- 국내 식량 가공·소비 시장 부가가치는 국내 곡물 생산 시장 부가가치의 약 150배 규모 (한국은행 '18 산업연관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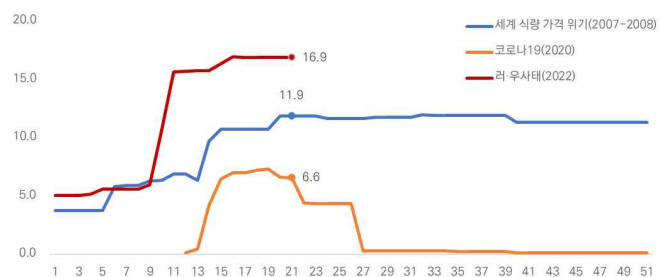
● 전 세계적으로 금년 현재까지 식량과 비료에 부과된 수출제한조치는 57건에 달함

- * 비료는 식량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식량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식량 수출제한조치 파악 시 조사대상에 포함됨
- 그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2.24) 이후 부과된 수출제한조치는 45건
- 품목별로는 소맥(18건), 대두유(10건), 팜유(7건), 옥수수(6건) 관련 수출제한조치가 많음

- '22.5.27일 기준, 수출제한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식량·비료는 세계 전체 수출량의 16.9%로, '07-'08년 세계 식량 가격 위기(11.9%)와 '20년 코로나19(6.6%) 당시보다 리스크가 큰 상황

- 현재 우리나라 식량 수입 중 수출제한조치 부과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은 11.6% (IFPRI, 칼로리 기준)

〈 수출제한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식량·비료 비중(칼로리 기준)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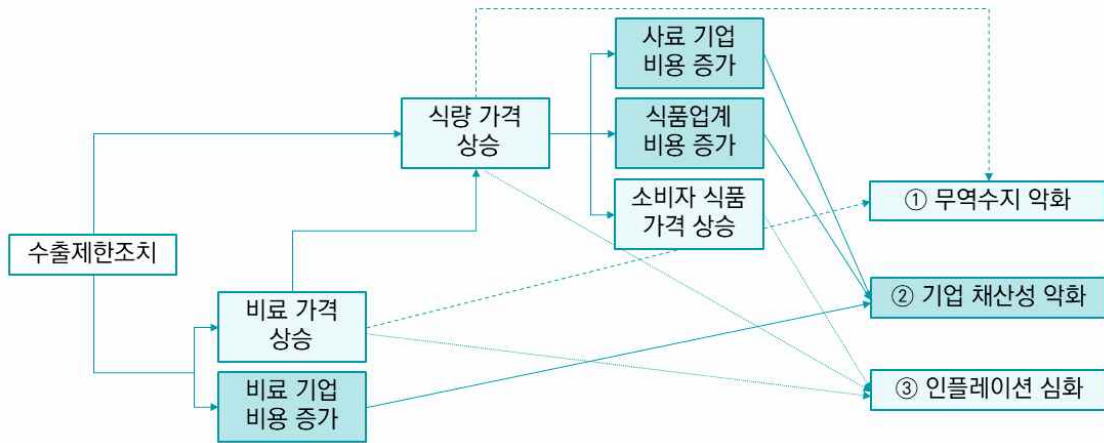


주 : 가로축은 각 사건 발생 이후 소요된 기간(단위: 주)

자료 : IFPRI

● 수출제한조치는 식량 공급망을 교란하여 ▲무역수지 ▲기업 채산성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짐

〈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식량 공급망 교란의 영향 〉



출처 : 저자 작성

- ① 무역수지 악화) 국내 생산이 적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식량 공급망 특성 상, 식량 가격 상승은 수입액 증가와 무역수지 악화로 연결
- ② 기업 채산성 악화) 식량 가공 산업의 원재료 가격은 인상되나, 완제품 가격은 기업간 경쟁 등으로 인상이 쉽지 않아 기업 수익률 하락
- ③ 인플레이션 심화) 마켓 바스켓*에 포함되는 식료품 가격 인상 → 소비자 물가 상승

* 마켓 바스켓(Market basket) :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필품 품목과 수량

● 수출제한조치에 따라 국제 식량 가격이 상승하여, 우리나라 수입 물량과 식품 대부분에 영향 존재



이미지: Shutterstock

- 수출제한조치 부과 이후, 식량 수입가격은 ▲곡물 45.7% ▲유지 31.1% ▲비료 77.5% 상승
- * 한국은행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증감률 기준, 곡물과 유지는 '22.2월 대비 '22.4월 가격, 비료는 '21.8월 대비 '22.4월 가격
- 곡물(45%)·유지(30%)·비료(80%) 가격 상승 시나리오 분석 결과, 농축산품과 음식료품 대부분의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료(13.6%), 축산(8.2~8.4%), 육류(6.0%), 가공 식료품(6.1%)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

● 시사점

- (단기) 식량 안보·공급망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여, 위험 품목을 파악하고 대체 공급선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 필요
- (장기) 식량 자급률 제고 및 해외 농업개발을 통해 안정적 식량 공급망 구축 필요
 - 해외 농업개발은 해외에서 식량 생산 후 국내로 유통망을 확보하여 조달하는 방식
- (민관 협력) 우리 기업의 국내외 식량 생산 및 유통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해외 투자가 중요



이미지: Pixabay

영상으로 살펴보기 ▶ <https://youtu.be/HAdKmZg4W5g>



GVC 기초 상식 : 런던금속거래소(LME) 알아보기 2

※ 세계 최대 비철금속 거래소인 런던금속거래소(LME), LME의 역할은 무엇이며 비철금속의 가격지수인 LME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보자

〈 LME 시리즈¹⁾ 〉

16호 : LME 알아보기 1
17호 : LME 알아보기 2

● LME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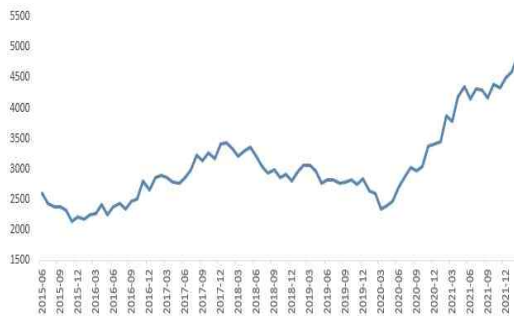
- LME(London Metal Exchange Index)란 LME에서 거래되는 구리,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의 가격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것으로, **비철금속 가격 기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 활용**

※ LMEX 가중치 : 알루미늄(42.8%), 구리(31.2%), 연(8.2%), 아연(14.8%), 주석(1.0%), 니켈(2.0%)

- LME는 팬데믹 초기인 '20년대 초 경기 불황에 의한 비철금속 수요감소로 하락했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러-우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상승세가 지속

- '22년 초 알루미늄·구리 등의 비철금속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LME는 지난 3월 사상 최고치인 5174.30 기록

〈 LME 지수 변동 추이(15~22.3) 〉



자료 : bloomberg

〈 알루미늄 가격 추이(15~22.3) 〉



자료 : 광해광업공단

● 비철금속의 가격 상승 및 하락 요인

- 비철금속의 시세는 다음의 원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

- ① (세계경기 동향) 경기가 호황이면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고 불황에는 가격 하락이 발생
- ② (산출국의 정치/사회 정세) 생산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 비철금속은 내전, 파업 등 해당 국가의 정세에 큰 영향을 받음
- ③ (전쟁 및 각국의 비축 상태) 비철금속은 중요한 전략물자로, 전쟁 대비 등으로 재고를 확보하려는 나라가 생길 경우 가격이 상승
- ④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환물심리*가 커져 비철금속의 매입 수요가 증가

* 환물심리 : 인플레이션 등으로 화폐 가치하락이 예상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물에 투자하려는 심리

- 이외에도 글로벌 비철금속의 소비/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면 중국 내 제조업 경기가 확대되며 비철금속 수요가 커져 글로벌 시세에 영향을 미침

1) 참고자료 : 1. 곽재선.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헤다출판사, 2020
 2. LME홈페이지(lme.com)
 3. 유태원. 원자재전쟁. 한빛비즈, 2017
 4. 조달청 블로그

● LME의 주요 기능

① 글로벌 비철금속 거래 가격 결정 기준 제공

〈 LME 공식가격(LME Official Price) 〉

세계 현물 계약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매일 오전장(First Session)의 2번째 링(Second Ring)이 끝난 후 발표되며, Cash(현물가격), 3Months(3개월 선물가격), 15Months(15개월 선물가격) 등으로, 품목에 따라 27Months(27개월 선물가격)까지 구분

- ② 선물거래를 통한 헤징(Hedging)의 기회 제공 및 실물 인수도 기능(실물을 사고파는 시장 기능)
- ③ 수급조절 기능 등 - 경기침체시 발생하는 비철금속 잉여분은 거래소 등록창고에 입고되며, 투자자나 금융기관은 이러한 재고를 매입하는 동시에 선물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낮은 리스크로 수익을 올리고 소유주들은 잉여 재고를 판매할 수 있게 됨. 이러한 방식으로 과잉 재고가 흡수되고 생산자 및 제조업자들은 경기 침체에도 지속적인 조업이 가능

● LME의 지정창고

- LME는 세계 34개국에 500여개가 넘는 비철금속 지정창고(approved storage)를 운영 중임
 - 실제 금속을 LME에서 소유하거나 직접 창고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되는 창고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지정창고들은 현물 보관, 창고증권 발행 및 실물 인도 등의 기능을 수행
- 우리나라는 부산·광양항에서 LME 지정창고를 운영 중

〈 국내 LME 지정창고 개요 〉

- 우리나라는 지난 '02년 부산과 광양에 LME 창고 설립이 승인되어 영국, 미국 등에 이어 세계 13번째,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3번째로 LME 지정창고를 유치한 바 있음
- 국내 지정창고 운영의 장점
 - 창고 물량의 상시 보유로 적기의 물동량 공급이 용이하여 국내 수요에 대한 간접 비축효과가 있으며,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동북아 비철금속 물류기지로서의 역할 수행

〈 한국의 LME 지정창고 〉



자료 : 세방기업 홈페이지

● 최근 LME 관련 이슈 ('인사이트' 4호 '최근 글로벌 니켈 가격 폭등의 뒷이야기' 참조)

- 지난 3.8일 니켈가격 급등 시 LME가 거래를 중단시키고 일부 거래를 취소시켜 미국과 홍콩의 금융회사로부터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
 - * 니켈 생산업체인 중국 칭산그룹이 보유한 매도 포지션을 증정한 업체들이 니켈값 급등으로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LME가 거래 중단 및 취소를 결정했으며, 해당 결정은 칭산그룹과 관련 증개 은행들에는 구제조치로 작용했으나 니켈 가격 상승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손해를 입힌 것으로 평가
- 이후 LME는 니켈 거래를 재개하면서 모든 금속 거래에 대해 일일 가격 제한폭을 설정

GVC 돋보기 : 미국 수출통제 제도 (미국 수출통제 시리즈 1편)

〈미국 수출통제 시리즈〉

※ 러-우 사태로 '22년 2월말 美정부는 수출관리규정(EAR) 개정을 통해 최초의 범국가 단위의 수출통제를 실시, 향후 국제 무역·기술 경쟁 상황 속에서 수출통제 제도의 역할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앞으로 3편에 걸쳐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 개요와 주요 역외 통제조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17호	미국 수출통제 제도
18호	對러 수출통제
19호	對중 수출통제

● (연혁) 美 수출통제 제도는 2차 세계대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책목표에 따라 변화

- 1940년 세계대전 당시 美의회는 최초 현대적 개념의 수출통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
 - 1941년 미국 참전과 함께 군수품 외 민간 상품 영역으로 수출통제 확대
- 냉전 당시 수출통제를 외교 및 국가 안보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
 - 1949년 수출통제법을 통해 최초 종합 수출통제 체계 정립하고, 공산 진영과 체제 경쟁을 위해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COM) 발족
- 1960년대 말 미-소 화해 분위기 속에 기존 수출통제 제도 재검토 및 규제 완화 진행
 - 1969년·1979년 수출관리법 통과로 수출통제 완화 지속
 - 1996년 완화된 수준의 새로운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로서 '바세나르 체제' 출범
- 부시 행정부 당시에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을 근거로 테러와의 전쟁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수출통제를 활용

● (수출통제개혁법) 미중 간 무역 기술 경쟁 본격화 속 '18년 수출통제개혁법(ECRA) 통과

- 수출통제와 관련한 법적 권한 일체를 대통령에게 영구 위임 ⇒ 미국 관할 및 역외수출, 재수출, 이전 등을 조사·감독·규제·금지할 수 있는 권한 보장
 - 상무부 장관이 통제 품목, 대상, 목록을 수립하고, 수출 감독, 승인, 중지 명령
- '신흥 및 기반 기술'을 규정하여 수출통제를 대상화
 - 상무부 장관의 집행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민·형사상 처벌 규정 강화

〈美수출통제개혁법 근거 상무부 지정 신흥 기술 리스트〉

기술명	지정일	근거
지리 공간 이미지 자동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20.1.6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공시
바이오 무기 및 24개 화학 처리에 사용되는 일회용 배양실	'20.6.17	호주 그룹 합의
핵산 구성 및 합성 처리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20.11.6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공시
복합 적층가공기술(AM) 및 수치 제어형 컴퓨터(CNC)	'20.10.5	바세나르 합의('19년)
극자외선 마스크 가동을 위한 리소그래피 소프트웨어		
5nm 웨이퍼 생산 기술		
컴퓨터 등 인증 및 권한을 우회하는 포렌식 기술		
통신사를 통해 입수된 통신정보, 메타정보 분석 소프트웨어	'19.5.23	바세나르 합의('18년)
준궤도 비행 관련 기술		
독립 마이크로웨이브 트랜지스터		
소프트웨어 영구 작동 기술		
포스트-퀀텀 암호화		
수중 청음기용으로 설계된 수중 변환기		
우주선 지원을 위한 특수 제작 항공기		

출처 : 美 의회 조사처(CRS) 및 상무부 공시자료

● 미국의 수출통제 시스템 개요

- **(법률 근거)** (1) 법률로 부여된 행정부 권한 (2) 국제 다자 수출통제 합의 체제 (3) 대외 경제제재 (sanction) 명령을 근거로 수립
- **(주무 기관)** (1) 무기류 : 국무부, (2) 핵 관련 물자 : 핵규제위, 에너지부, 국무부, 상무부, (3) 국방·민간 이중용도(dual-use) : 상무부 관리로 구분 ⇒ 다수의 부처가 분야별 수출통제를 담당
- **(규제 대상)** 미국 수출통제 시스템에서는 크게 (1) 무엇을 (2) 어디로 (3) 누구에게 수출하고, (4) 해당 수출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통제 대상 여부가 결정

〈 수출 규제대상 결정 요소 〉

무엇을	•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 기술, 소프트웨어 등 명단, 즉 상업통제 리스트(CCL)를 작성 관리
어디로	• 수출통제분류번호(ECCN)의 통제 사유별로 수출 대상 국가 제재 여부 확인 필요
누구에게	• 미국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등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 단체를 지정함으로써 해당인(기업)에 대한 수출금지 및 사전 수출 승인제 운용
용도	• 수출품의 최종용도(end-use), 최종 사용자(end-user)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무부 등 사전 수출 승인 의무

- **(승인 절차)**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의 수출 면허 심사 절차는 신청 > 검토 > 판정 > 항소 > 대통령 재가 단계를 거쳐 청원 접수 후 90일 이내 처리 원칙

● 역외 수출통제 조치

-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수출관리규정(EAR) 내 규정으로, 외국산 제품일지라도 미국 기술·소프트웨어장비·소재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시설을 통해 생산된 경우, 美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수출 가능

〈 FDPR 적용 대상 〉

- (1) **(국가 안보 목적)** 미국 기술(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생산된 외국산 제품이 상업통제 리스트(CCL)의 통제 사유 기준에서 '국가 안보'에 해당하고, 수출의 도착지가 수출관리규정(EAR)에서 정한 국가 그룹 D:1 또는 E에 해당하는 경우*
*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등 대상
- (2) **(우주위성 관련 품목)**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9x515, 즉 민간 위성 및 기타 우주 관련 물자, 기술, 소프트웨어로 분류되는 제품으로, 수출 도착지가 수출관리규정(EAR) 국가 그룹 D:1 또는 E에 해당하는 경우
- (3) **(국방 무기 관련 품목)** 600 series ECCN*, 즉 국방 물자로 분류되는 제품으로, 수출 도착지가 수출관리규정(EAR) 국가 그룹 D:1, D:3, D:4, D:5, 또는 E에 해당하는 경우
* 600 series : 국무부 관리 무기통제 리스트(USML)에 포함되지 않은 무기류 품목으로 모든 수출 시 상무부의 수출 면허 취득 의무 (對캐나다 수출 제외)
- (4) **(중국 화웨이 대상)**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분류상 전자, 컴퓨터, 통신 및 정보보안에 해당하는 기술·소프트웨어 등 제품으로, 화웨이 및 그 관계사 대상 수출인 경우
- 해당 규정 각주에서 명시한 Entity List에 등재된 개인(기업)과의 생산, 연구개발, 구매, 수출입 거래 등과 관련한 일체 활동에 대한 통제
- (5) **(러시아·벨라루스 대상)**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해 對러시아·벨라루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

- **(최소허용기준)** 미국 기술이 외국산 제품의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소할 경우 ⇒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소허용기준' 제도 존재

- (외국산 최종 가치에서 미국 기술 0% 초과 시 수출통제 대상 품목) 반도체(메모리 회로 제외), 고성능 컴퓨터용 초고속 인터넷 기기, 우주 엔진 관련 기술, 특정 컴퓨터 암호화 기술, 특정 센서 레이저 관련 군용 제품 등
- (외국산 최종 가치에서 미국 기술 10% 초과 시 수출통제 대상 품목) 국가 그룹 E:1(이란, 북한, 시리아) 또는 E:2(쿠바)로 수출하는 경우, 대부분 상업통제 리스트(CCL) 품목과 저기술 일반 소비재(EAR99) 품목
- (외국산 최종 가치에서 미국 기술 25% 초과 시 수출통제 대상 품목) 다수의 상업통제 리스트(CCL) 품목 및 우크라이나 크림 지역으로 수출되는 저기술 일반 소비재(EAR99) 품목

☞ 다음호(18호)에서 「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사례」로 이어집니다.

GVC 소식통 ①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항공운송] 프랑크푸르트(독일)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사항 지속 →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12월)

〈 항공 - 항차 정보 〉

출항예정일(매주)	예약 마감일	서류/화물 (입고) 마감	중소기업 전용 스페이스
수요일	화요일 17:00	수요일 12:00 이전	편당 3톤 내외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7: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항공물류수행사 ☎ 02-310-6554

● [해상운송] 미국 롱비치항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SM상선)

- (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화주) 전용 선복을 통한 해상운송 지원
- (지원대상) 한국發 미주 수출 물량이 있는 수출 중소기업(실화주) *포워더社は 신청불가

〈 항차 정보 〉

도착지	출항일(부산)	신청마감일	선적 물량
美 롱비치항 (미국 서안)	7월 19일(화)	6월 28일(화)	30TEU
	7월 26일(화)	7월 7일(목)	

※ ① 접수 물량이 선적 물량을 초과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② 매 항차에 대해 신청서 재작성必

- (상세내용) [국적 해운선사 "SM상선"을 통한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에서 '지원사업 신청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제출(hjo117@kita.net)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5754 / hjo117@kita.net

● [물류보관] 수출 컨테이너 부산신항 물류센터 일시 보관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칼트로지스)

- (사업개요) 항만 CY 적치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① 수출 컨테이너 보관장소 제공 ② 보관료 할인(일반가격 대비 30%) ③ 기타 물류 업무 상담 및 지원
- (지원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더社は 신청불가

〈 서비스 정보 〉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더/운송사를 통해 직접수배 필요
2	물류센터 상하차	포함	시장가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3	물류센터 보관		
4	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		

※ ①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대상이며, 특수 컨테이너는 사전 문의 및 확인 필요 ② 장기보관 희망 시, 보관일 관련 사전 협의 필요

- (상세내용) [수출 컨테이너 부산신항 물류센터 일시 보관 지원사업\(링크\)](#)를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제출(hjo117@kita.net)
- (문의처) **지원사업 문의** :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02-6000-5754/5935 / hjo117@kita.net
물류센터 보관 및 작업 문의 : 칼트로지스 「부산신항물류센터」 ☎ 051-366-8011 / jhshin@calt.co.kr



GVC 소식통 ② : 공급망 관련 상담회 및 포럼 개최 안내

● '2022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회' 포럼

-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현 시점, KOTRA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 재편 트렌드 대응 및 새로운 기회 발굴을 지원하고자 국내외 공급망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

• 일시/장소 : 7월 11일(월) 14:00~16:30 / JW메리어트호텔서울 그랜드볼룸(5F)

신청 QR

• 신청기한 : 7월 7일(목) 限

• 참가신청 : [2022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회\(클릭\)](#)에서 신청

※ 현장 참석은 장소 제약으로 인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모집 마감 시 유튜브 라이브 링크 안내 예정



• 프로그램

시간대	내용	비고
14:00-14:03 (3')	개 회 사	혁신성장본부장
14:03-14:30 (27')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 및 트렌드	국제경영관리학회
14:30-15:00 (30')	공급망 위기에 따른 국내 제조업 영향 및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15:00-15:30 (30')	2022 글로벌 원자재 시장 전망 및 시사점	Korea PDS
15:30-16:00 (30')	[미국/화상] 반도체 산업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회	美반도체산업협회
16:00-16:30 (30')	[유럽/화상]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원자재 수요 동향	유럽금속협회

• 문의처 : KOTRA 공급망 포럼 사무국 ☎ 070-8884-6000 / kotra.pjt@gmail.com

● 글로벌 공급망 현장 컨설팅

-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및 밸류체인 진입을 위한 1:1 무료 현장 컨설팅

• 일시/장소 : 7월 11일(월) 12:30~14:00 / JW메리어트호텔서울 그랜드볼룸(5F)

신청 QR

• 신청기한 : 7월 7일(목) 限

• 참가신청 : [2022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회\(클릭\)](#)에서 신청

※ 포럼 신청 링크와 동일, 하단 현장 컨설팅 신청 클릭하여 사전 질의 작성 필수



• 상담내용 : ① KOTRA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서비스 안내, ② 자동차 및 반도체 GVC 진입 및 공급망 관련 상담, ③ 공급망 관련 기업 M&A 상담

• 문의처 : KOTRA 공급망 포럼 사무국 ☎ 070-8884-6000 / kotra.pjt@gmail.com

● 2022년 글로벌 신통상포럼 & 향후 10년을 이끌 미래 혁신산업 포럼

- IPEF 등 신통상 질서를 파악하고, 향후 10년 세계를 주도할 글로벌 산업 트렌드 점검을 통해 한국의 미래 혁신산업 육성방향 및 우리기업 대응방안 모색

• (일시) 6월 24일(금) 8:30~13:00 [통상포럼]

6월 24일(금) 14:30~16:50 [혁신산업포럼]

• (신청방법) 포럼 시간에 우측 QR 코드로 KOTRA 비즈니스 채널 직접 접속

• (상세내용) [KOTRA 2022년 글로벌 신통상포럼\(클릭\)](#) 및 [향후 10년을 이끌 미래 혁신산업 포럼\(클릭\)](#)에서 확인

직접신청 QR



• (문의처) [통상포럼] KOTRA 통상협력팀 이동준 사원 ☎ 02-3460-3317 / djlee466@kotra.or.kr
[혁신산업포럼] KOTRA 구미IC팀 김솔기 대리 ☎ 02-3460-7678 / research1@kotra.or.kr



더 찾아보기 : '2050 에너지 제국의 미래'(저자 : 양수영·최지웅) 책 소개

※ 러-우 사태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주목받고 있음. '2050 에너지 제국의 미래'가 소개한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패권 경쟁의 이면을 아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자

● 유럽이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속셈?

- 유럽은 2050 탄소중립을 세계 최초로 선언 → '21.7월에는 EU 집행위가 탄소감축 세부 정책 제안인 'Fit for 55'도 발표했으며, 탄소문제의 국제사회 실질적 규제와 법규 단계로의 진입을 유도
 - * Fit for 55 :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감축하는 방안
-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의 선도적 개발·보급으로 산업혁명을 통한 탄소경제를 주도한 유럽이 탄소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어색 → 일부 개도국에는 '사다리 건너차기'로 비칠 수밖에 없음
 - ⇒ 이는 기후변화, 탄소문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유럽 산업 성장에 유리하기 때문 !!
- 주요 유럽 국가들의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40% 이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업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며 다른 국가 대비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음
 - '20년 발전량 기준 재생에너지 비율 : 독일(46.7%), 영국(44.9%), 이탈리아(42.8%), 스페인(45.0%) 등
 - 또한 EU의 제조업 비중은 16.4%로 한국의 제조업 비중 28.4% 대비 낮아 영국·이탈리아·스페인 등의 국가들의 연간 발전량이 한국의 절반 수준, 산업구조적으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함
- 산유국의 자체적인 개발 역량 확보로 과거 중동 석유를 지배하던 유럽 국가들이 주도권을 뺏기면서 새로운 산업 분야인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고자 함
 - 1950~70년대 서구의 세븐 시스터즈(미·영 7개 정유사) → 2000년대 뉴 세븐 시스터즈(산유국 국영 석유사) →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 유럽 업체들(덴마크 베스타스, 독일·스페인 지멘스가메사)
- '20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250GW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신규 건설될 것으로 예측, 재생에너지 전문 기술을 보유한 유럽 업체들이 시장을 과점하며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고 있음

● 탄소감축 속도는 중국에 달려 있다? - 미국 vs 중국 패권 경쟁 구도

- 패권국은 에너지와 식량 자립이 필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두 가지 문제점 보유
 -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며 동시 사우디·UAE·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을 우방으로 두며 중동을 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육성에도 힘쓰며 패권국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선 중국은 ①에너지원의 해외의존도가 높, 필요한 원유의 70%를 수입에 의존
 - 대부분을 사우디·이라크 등 중동에서 들여오는데 거쳐오는 해협(호르무즈해협, 남중국해)을 미국이 관리함. 만약 미국이 해협을 봉쇄하여 원유 수급을 통제할 경우, 차량·선박·항공기의 가동 뿐 아니라 군사 무기 운용까지 곤란
- 또 다른 문제점은 ②지나치게 많은 탄소 배출량,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이 높아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음
 - '20년 기준 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39억 톤이며 이는 2위 인도(7.6억 톤)의 5배에 해당하는 수치
- 미·중 대결의 핵심은 누가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로서 중국은 경제 규모 확대를 1차 과제로 고려,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30년경 중국이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 전망
- 그러나 화석연료기반 경제구조에서 성장과 탄소감축의 동시 추진은 불가능에 가까워, 중국은 탄소중립 달성 시점을 '60년, 탄소 배출 피크 시점을 '30년으로 명시 (EU는 중국에 시점을 당겨줄 것을 요구)
- 미국은 자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민주주의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는데 기후변화 대처 역시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보편적 가치로 중국 견제라는 면에서 유럽과 미국의 이해가 일치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22.2.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심층 분석
 -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전파 및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지원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분석센터’는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 산업분석실(무역협회가 담당), 공급망 모니터링실(KOTRA가 담당) 등 3개 실을 두고, 3개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22.3.21)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및 현장 중심의 공급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편 전(12)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작성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6. 21. 수)

[환율]

	'20.12.31	'21.12.31	'22.5.31	'22.6.17	'22.6.20	'22.6.21	전일비	21말비
₩/US\$	1,186.30	1,188.80	1,237.20	1,287.30	1,292.40	1,293.60	+0.09%	+5.22%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237.40	1,287.00	1,290.90	1,292.60	+0.13%	+5.08%
₩/CNY	166.04	186.51	185.67	192.15	193.25	193.19	-0.03%	+2.32%
₩/Y100	1,051.19	1,032.48	967.77	960.46	958.19	957.80	-0.04%	-5.23%
Y/US\$	103.34	115.14	127.84	134.03	134.88	135.06	+0.13%	+11.02%
US\$/EUR	1.2279	1.1318	1.0741	1.0518	1.0528	1.0518	-0.09%	-5.34%
CNY/US\$	6.5305	6.3681	6.6520	6.6984	6.6801	6.6937	+0.20%	+2.78%

* '21년 평균 환율: (₩/US\$)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6.20 (전일)	'22.6.21				
					전일(6.20)비	'21년최저비	'21년말비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108.43	111.79	▲3.4 +3.1%	▲61.7 +123.4%	▲34.7 +45.0%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22.35	115.9	▼6.4 -5.3%	▲28.6 +32.8%	▼4.8 -4.0%	
비철금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8,875.00	9,000.00	▲125.0 +1.4%	▲1244.5 +16.0%	▼692.0 -7.1%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462.00	2,519.50	▲57.5 +2.3%	▲568.0 +29.1%	▼286.5 -10.2%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5,230.00	25,540.00	▲310.0 +1.2%	▲9633.0 +60.6%	▲4615.0 +22.1%

[반도체]

	'20	'21	'22.3	'22.4	'22.5	6.16	6.17	6.20	6월(~6)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75	3.47	3.39	3.42	3.42	3.42	3.41
(YoY)	-21.9%	+8.0%	-11.0%	-25.1%	-23.9%	-24.2%	-24.4%	-24.8%	-24.6%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8.0	8.2	8.28	8.24	8.24	8.05	8.24
(YoY)	+7.0%	+32.8%	+33.9%	+34.5%	+30.2%	+26.7%	+25.6%	+22.3%	+26.5%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5.27	'22.6.2	'22.6.10	'22.6.17	전주(6.10)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4175.35	4208.01	4233.31	4221.96	-0.3%	-16.3%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5.31	'22.6.15	'22.6.16	'22.6.17	'22.6.20	전일(6.17)비	'21년말비
BDI	2217	2566	2387	2462	2578	2596	+0.7%	+17.1%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협력기관

